

**증권 다이제스트**

매월 발행어음에 투자하는  
**적립식 퍼스트 발행어음**  
출시!!

**한국투자증권**

**적립식 발행어음 신규 출시**

한국투자증권은 개인고객 자산증식을 위해 매달 적금처럼 적립할 수 있는 '적립식 퍼스트 발행어음'을 신규출시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하며,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월 적립금 최소 1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까지 1년간 정액적립으로 납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해지 시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발행어음은 발행사가 직접 발행하고 고객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으로 적립식 퍼스트발행어음은 한국투자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어음이다. '적립식 퍼스트 발행어음'은 한국투자증권 전 영업점과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하나금융투자**

**김미파이브2 (Give me Five 2)**  
전격 앙코르 판매!

1년간 세전 연 9% 금리 적용되는 월 저축형 환매 조건부채권(RP) 상품을 제공하는 '김미파이브2(Give me Five 2)' 이벤트의 한도를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 증액해 추가로 모집한다. 매력적인 금리에 입출금의 편리성을 더한 '김미파이브2(Give me Five 2)'는 매달 일정금액의 유희자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손님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금번에도 미처 가입하지 못한 손님들의 요청에 힘입어 특별 한도를 배정해 추가 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문호 기자

**하나금융투자**

**'김미 파이브2' 추가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가입일로부터 1년간 납입이 가능하며, 각 입금일로부터 연간 5%의 금리가 적용되는 월 저축형 환매 조건부채권(RP) 상품을 제공하는 '김미파이브2(Give me Five 2)' 이벤트의 한도를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 증액해 추가로 모집한다. 매력적인 금리에 입출금의 편리성을 더한 '김미파이브2(Give me Five 2)'는 매달 일정금액의 유희자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손님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금번에도 미처 가입하지 못한 손님들의 요청에 힘입어 특별 한도를 배정해 추가 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문호 기자

**하이투자증권**

**HI ELS 1종 공모**

기초자산: 국내 / 동종 / 유망주

**하이투자증권**

**7일까지 ELS 1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7일까지 ELS 1종을 총 2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575호는 KOSPI2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고기준가격의 90% (6개월), 85% (12개월), 80% (18개월), 75% (24개월), 70% (30개월), 65%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0% (연 6.0%)의 수익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이다. /김문호 기자

**자회사 실적에 의존않고, 자체사업으로 승부수**

**연료전지의 힘! 지주사 두산의 품격!!**

상반기 8400억원 누적 수주  
전지박 사업 수요 급증 전망  
지주사-자회사간 상관관계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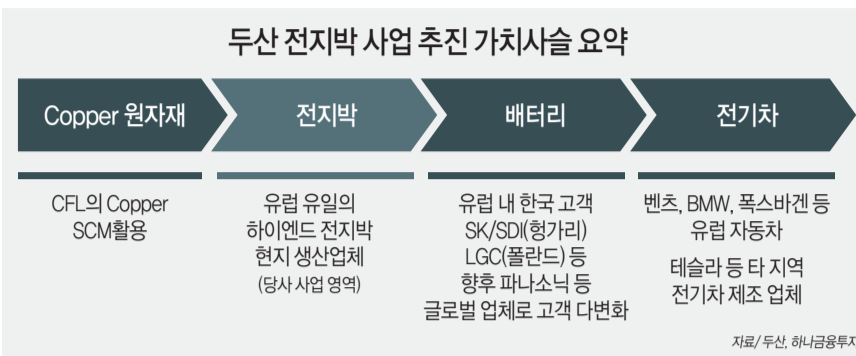
흔히 지주회사는 핵심 가치로 자회사를 전면에 내세운다. 아들(자회사)이 돈을 많이 벌면 유입되는 현금도 늘어나고, 향후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거나 배당하는데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분법 평가에 의존하는 지주사들은 '천수답' 경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도 있다.

최근 자체 사업을 기반으로 한 '종갓집' 두산이 주목받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두산은 올해 연료전지 부문에서 상반기에만 8400억원의 누적수주를 달성했다.

지난해 연료전지 부문 수주실적(4153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최근 두산이 수주한 세계 최대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연료전지 114대(총용량 50MW)를 공급하는 이른바 4690억원 규모의 '부생수소 프로젝트'가 수주 실적을 견인했다.

두산의 연료전지 수주 목표는 1조 5000억원이다. 마무리 단계인 남부 신인천 3차(20MW), 미국 코레티켓 사우스 윈저 (5MW) 등 2개 프로젝트 2200억원을 합산하면 수주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연료전지 부문의 흑자 전환 가능성도 높아졌다. 두산은 지난 2016년 100억원, 지난해 63억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정부의 신재생드라이브로 친환경 발전인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두산 연료전지사업부의 시장가치를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지난 달 24일 뉴욕 증시에 상장한 블룸에너지가 3조5000억원대의 시가총액까지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인 '전지박' 사업은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지차·배터리 시장조사 기관인 SNER리서치는 전지박 수요가 올해 7만5000t에서 2025년 97만5000t으로 연 평균 44% 늘고, 시장 규모는 올해 1조원에서 2025년 14조3000억원으로 연 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산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헝가리 터

터바녀 산업단지 내 14만㎡ 규모의 부지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헝가리 공장에서는 연간 5만대의 전지박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기차 22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두산은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두산은 동유럽에 진출해 있는 LG화학, 삼성SDI 등과 장기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두산은 2014년 록셈부르크 소재 동박 제조업체인 '서킷포일'을 인수해 전지박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신사업인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사업도 순항 중이다.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인터드론(Inter Drone) 전시회에 연료전지를 탑재한 드론도 출품할 예정이다.

과거 주력 자회사의 주가흐름은 지주회사의 주가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였다. 또 자회사들의 실적과 이슈가 중

요한 투자 판단 지표였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형 지주회사(두산·한화·SK·LG·CJ)의 주가와 주력 자회사의 주가간 상관관계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

증권가 한 연구원은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중소형 지주회사들과 각각의 주력자회사간 상관관계수는 2010년(가장 지주회사 전환을 많이 한 해)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는 곧 과거에 지주회사 투자의 일반적 패턴이었던 주력자회사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투자전략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지주회사는 그룹의 오퍼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외부 인수합병(M&A) 혹은 내부 사업부 이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에 신중하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경제민주화 이슈 등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늘었다"며 "이를 좋은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영업 자회사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각 단계별 시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실적 및 각 회사 재무전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플랫폼-맥쿼리, 법정 다툼 불가피**

**"대차거래 관련 의혹, 사실무근" 근거 없는 비방 강력 대응 밝혀**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과 맥쿼리 자산운용의 싸움이 접입가경이다.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은 3일 맥쿼리자산운용이 제기한 주식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취득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은 이날 낸 입장 자료에서 "대차거래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맥쿼리는 플랫폼 등 3개사가 대차거래를 통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MKIF) 임시 주주총회의 결정을 불법 취득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MKIF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플랫폼은 "모든 거래를 집행할 때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변호사와 준법감시인을 통해 사전·사후 검토를 한다"며 "공동보유나 의결권 거래와 관련된 의혹도 사실무근이며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은 "맥쿼리인프라의 12개 자산들은 주주들의 소중한 재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매일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에 안타깝게도 비리, 횡령 등과 관련한 의혹들이 불거지며 지난 6개월간 관련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중순환도로의 상납구조와 비리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불과 1주일 전 천안산고속도로 상납구

조와 관련된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또다른 불상사가 발생했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맥쿼리식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관리되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MKIF 소수주주인 플랫폼은 이 펀드 운용사인 맥쿼리의 과다 보수 등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MKIF에 운용사 교체할 것을 논의하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이달 19일 임시 주총이 열릴 예정이다.

주총과 관련해 플랫폼은 "중립적인 감독이사 선임이 시급하다"며 "감독이사 선임안건을 안건에서 제외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은 "당사의 국내 첫 주주 행동주의 투자가 국내 자본시장에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원한다"며 "결정은 시장과 주주들이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API 정보제공 서비스 시작**

한국예탁결제원은 '세이브로(SEIBro) 오픈플랫폼' 구축, API 방식의 증권정보 제공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참가요건을 갖춘 정보수요자가 데이터를 직접 호출해 필요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식이다.

제공하는 정보는 기업·주식·채권·파생결합증권·외화증권 등 5개 부문 36종의 증권관련 내용이다. 특히 최근 정보수요를 반영해 '국가별·종목별 외화증권 보관·결제현황'과 '비상장주식 유통추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API 정보 이용료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API 서비스는 스타트업에 포함한 모든 법인이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9월, 전국서 아파트 1만4000가구 공급**

이달 전국에서 1만4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3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전국 21곳에서 1만 4091가구 가운데 940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서울 및 수도권은 1810가구, 지방 7592가구다. 이는 작년 1만 6577가구보다 줄어든 물량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지역이 3212가구, 경북 1127가구, 전남 1097가구, 서울 816가구, 경기 994가구, 대구 928가구 등이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리더스원'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을 비롯해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KCC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 주거복합단지 '안양 KCC스위첸'을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이 가까우며 KTX광명역,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지방에서는 현대건설이 대구시 수성

**(9월 주요 분양예정 단지)**

구분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	총가구수 (일반분양)	시공사
수도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	59~238	1,307(307)	삼성물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3-1번지	안양 KCC스위첸	59~74	445	KCC건설
지방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4번지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59~84	503(343)	현대건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455-2	동래 더샵	64~84	695(603)	포스코건설
	경남 거제시 장평동	거제 장평 꿈에그린	59~99	817(275)	한화건설

분양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각사

구범어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을 선보인다.

포스코건설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동래 더샵'을 공급하고, 한화건설은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서 '거제 장평 꿈에그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